정물화로 읽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역사와 문화

《보이지 않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펴낸 최정은씨

때론 한장의 그림이 한권의 역사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그려졌던 정물화는 당시의 사회 · 문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시기의 네덜란드 정물화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바니타스' 다. 헛되고 덧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바니타스 정물화' 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라' 는 경건한 훈계를 담고 있다.

최정은씨

한길아트/A5신/380면/22,000원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 브뤼겔이 그린 〈꽃 정물화〉를 보자. 백이십여 송이나 되는 화려한 꽃들이 세세하게 묘사돼 있다. 화병 주위에는 아름다운 조개껍질들이 놓여 있다. 보스카르트가 그린 〈벽감 속의 꽃 정물화〉도 마찬가지다. 산을 배경으로 만개한 꽃들이 이국적인 화병에 꽂혀 있다. 이 그림 역시 화병 주위에는 조개껍질이 몇개 흩어져 있다. 이를 단순히 꽃을 그린 정물화로만 봐야 할까. 아니다. 이 그림은 17세기의 네덜란드를 말해주고 있다. 먼 이국에서 온 듯한 귀한 꽃들과 희귀해보이는 조개껍질들은 당시 네덜란드의 부유한 경제상황과 세계에 대한 지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도상학으로 해석한 17세기 네덜란드

최정은씨(31)가 펴낸 《보이지 않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한길아트)은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를 도상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정물화는 단순히 장식용 그림이나 '묘사력 연습' 을 위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본질에 기초한 그림"이자 "진진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벌인 독립전쟁과 활발한 대외무역으로 경제가 발전했던, 이른바 '황금시대' 였습니다. 이 시기에 출현한 정물화는 당시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르네상스가 지나고 17세기 들어 막대한 부를 움켜쥔 시민계급이 출현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관에 맞는 새로운 작품을 요구했죠. 이때 나타난 정물화는 '주체의 정립' 이라는 당시의 데카르트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네덜란드 정물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바니타스' 다. 모든 정물화의 공통된 메시지인 바니타스는 '헛되다' '덧없다' 는 뜻인데, 기독교적 세계관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또한 바니타스 정물화가 활발히 그려진 17세기 중반은 30년 전쟁을 겪은 직후였다. 새로운 가치와 이념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이 시기, 유럽인들은 모든 것을 덧없고 불투명하게 생각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이런 시대상황을 대변한다.

"이 개념은 해골을 모티프로 하는 정물화에서 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해골은 물론 죽음을 나타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니타스에서 변주되는 이 '죽음' 이 개인의 '의식의 거울' 이라는 점입니다. 해골은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보다 더 나은 거울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젊음을 아낌없이 누리라는 세속적 충고도 담겨 있어요."

'무언의 언어' 가 주는 매력에 이끌려

그가 정물화에 매력을 느낀 것은 대학원 시절이다. 정물화는 모든 미술의 기초가 되는 분야. 현대미술을 연구하고 싶었던 그 역시 정물화를 공부했다. 하지만 인연은 어쩔 수 없었나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는 정물화에 빠져들었다. 처음 계획했던 길을 버렸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미술사에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공부하다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되더군요. 정물화는 비록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지만 그 '무언의 언어' 는 실로 많은 사실들을 이야기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매력적이죠."

그는 한때 종합 예술지 《공간》에서 기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 시절 청탁한 원고를 받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단 글을 써보고 싶었다. 물론, 연륜이 쌓이면 자신의 이름이 박힌 책도 내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의 논문 〈17세기 초 네덜란드 정물화 '차려진 식탁' 의 상징과 의미〉를 읽은 미술평론가 노성두씨가 책을 내보라고 적극 권유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죠.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공부를 좀더 한 다음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과 주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담으려 애썼습니다."

열권정도의 책을 쓰고 싶다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와 장르화를 공부해볼 작정이다. 한동안 공부하느라 놓았던 붓을 다시 들고 싶은 욕심도 있다. – 최갑수 기자